

冠岳語文研究 第1輯

開化期の小説觀과 新小説의 變貌樣相

權 寧 珉

1976. 10

開化期の 小説觀과 新小説의 變貌樣相

權 寧 珉*

1.

폐쇄되어 있던 朝鮮社會가 근대적인 歷史의 場으로 돌입할 수 있었던 하나의 時代的 段階로서 開化期の 중요성은 여러 方面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다.

신문학의 형성과정에서 볼 때, 개화기의 문학은 西歐秩序의 수용과 자주의식의 고취를 강조하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個人的인 體驗의 세계로 심화된 경우보다는 개화기라는 한 시대의 보편화된 時代精神으로 작품 속에 수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화기의 문학에서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명확한 안목으로 현실을 파악하여 극명하게 제시해 놓은 작품이 드물다는 한계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작가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봉건적인 조선사회와 근대적인 西歐精神의 충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封建朝鮮과 開化朝鮮을 둘다 눈에 비추어 주는 미묘한 경계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서구문물의 수입에 따른 傳統的인 文學觀의 變貌樣相, 외래적인 문학이론의 단편적인 접촉과 그 수용태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개화기 문학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전제적인 요건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 서울大 國語國文學科 助教(現代文學專攻)

본고에서는 소설의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개화기에 형성되고 있었던 소설관의 일면과 개화기 소설의 전개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표를 두기로 한다.

개화기의 小說觀 내지 文學觀이 미평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文學의 理論이란 언제나 모든 문학적 현상을 현재의 입장에서 論理的인 體系속에 관련지어 보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作品이 갖는 總體的인 意味 역시 작가와 작가의 동시대인들에 대하여 그 작품이 지니게 되는 의미가 우선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독자들에게 의해서 형성된 批評의 歷史가 독립된 가치로서 작품의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新小說」이란 명칭으로 문학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화기 소설의 내용을 보면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지난날 조선시대의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고정적 관념이나 인습적 태도가 그대로 계승된 측면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화기의 강렬한 시대정신이 소설 속에 새로이 수용되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개화기의 소설은 내용의 叙述構造나 인물의 類型 등에 고대소설적인 특성이 상당한 세력으로 남아 있지만¹⁾ 文明開化의 이상을 외면하지 않고 당시의 時代相을 그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설을 통하여 민족적인 각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서구 근대문학의 정신적 내용이 점차 소설 속에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주 독립과 문명개화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라는 침략적 지배가 현실문제로 대두되자, 한편으로는 일제세력의 확대에 대한 비판과 저항,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 세력에 대한 반민족적 야합과 동조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시

1)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位置(韓國文化研究所 1973) p. 152.

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화기 소설의 특성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문학사적인 위치 뿐만 아니라 그 문학적 성과를 논하는 데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당시인들의 소설에 대한 인식과 문학관이 이러한 개화기 소설의 문학적 전개양상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소설이 등장하기 전에 社會啓蒙과 文明開化의 이상을 내세워 널리 번역 출간된 史書類는 「泰西新史攬要」라는 명칭으로 1897년 5월에 간행된 유럽의 근대사를 소개하기 위한 역사책에서 비롯된다. 한문으로 기록된 상하 권이 學部 編輯局에서 발간된 뒤에 곧 이어서 1898년에는 「中日略史合編」, 「俄國略史」가 국한문으로 발간되었으며, 1899년에는 「中東戰記」(玄采 譯), 「美國獨立史」(玄采 譯), 「波蘭末年戰史」(魚瑒善 譯)가 나왔고, 「埃及近世史」(張志淵 譯), 「法蘭西新史」(玄采 譯), 「越南亡國史」(玄采 譯), 「比律賓戰史」(安國善 譯) 등이 계속 발간되었다.

이들 史書類는 개화기의 社會的인 發展과 知的 發展을 위해 노력했던 선구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번역 소개된 것으로, 대부분이 文明開化의 필요성에 따른 신지식의 수용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인 각성과 저항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앞에 두고 그 간행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歷史知識의 공급보다는 救國的인 戰史나 民族的인 鬭爭史를 통하여 민족의 自主獨立意識과 외세에 대한 抵抗意識을 촉구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開化運動의 방향이 서구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採西自強意識에 바탕을 두게 되자 史書類의 발간은 주로 서구는 물론 동양 제국의 근세사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었다. 외래적인 문물에

서 느끼게 되는 문명의 異質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며, 史實의 제공보다는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경로나 암시까지 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今此波蘭의 滅亡함도 그 國內에 露國黨과 普國黨이 有하야 露普를 引入함이라 波蘭人이 波蘭國事를 管할진디 波蘭國을 爲함이니 此는 波蘭黨이라 稱함은 可커니와 外國黨되는 者는 忘其本함이어늘 畢竟은 外國黨의 名勝로 私黨의 力을 保有코저 하다가 其國이 亡하기에 至하니 國이 亡하고 其黨이 何處에 得存하리오 故로 國家을 欲保하는 者는 設或朋黨을 相結호지라도 外國力을 依賴하야 國勢를 鞏固케 함은 一은 其國을 自賣함이요 二는 곧 其身을 自戕함이니 試想호져어다……〉

〈……大抵埃及은 地形이 最勝하고 物產이 豊富한 邦國이요 其繼世之君은 甚히 無能호 虐政이 無호고 其輔弼之臣은 庸劣無能호者가 아니요 其士氣는 忠義하고 慷慨호者가 不乏호고 其人民이 斯한 全然愚昧호者가 아니로되 至于今日하야 降爲他人之奴隸는 何也요 但其外債募集으로 由하야 虎狼을 引入함의 國權을 墜失하야 此에 至호앗스니 天下後世는 讀此者 其亦凜然以懼矣夫인저……〉

「波蘭末年戰史」와 「埃及近世史」의 서문은 타국의 역사적인 사건의 소개를 통하여 韓末의 政勢를 그대로 암시하고 있는 셈인데, 淸·露·日의 三國勢力과 결탁한 무리들의 권력다툼으로 조선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실정과 外國勢力의 經濟的인 侵略과 利權爭奪로 經濟力이 극도로 약화된 점 등을 쉽게 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06년 玄采에 의하여 소개된 「越南亡國史」는 中國人 梁啓超가 越南의 亡命客 巢南子가 述한 내용을 1905년에 纂한 것으로, 玄采 이외에도 周時經, 李相益이 각각 번역하여 1907년에 순국문으로 간행하였으며, 越南의 植民地化라는 亡國의 歷史를 통하여 朝鮮에 대한 日本의 침략야욕을 경고하여 주고 있다. 〈日本의 朝鮮〉이라는 「越南亡國史」의 附錄을 보면 第二의 越南의 現象으로 朝鮮 國運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朝鮮이 朝鮮人의 朝鮮이 아니요 日本의 朝鮮이 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

특되어 있다.

外勢에 대한 抵抗意識과 獨立自強이라는 강렬한 社會意識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史書類의 발간과 성격을 같이하여 「伊太利建國三傑傳」(申采浩 譯 1906), 「比斯麥傳」(黃潤德 譯 1907), 「라란부인전」(譯者未詳 1907), 「華盛頓傳」(李海朝 譯 1908), 「乙支文德」(申采浩 著 1908) 등의 傳記物이 소개되면서 國權回復과 文明開化라는 사회적 이상은 더욱 명백해졌다. 개화기에 소개된 傳記物의 일부는 단순한 傳記로서 보다는 歷史文學내지는 近代 歷史小說의 前史로 정립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서 西歐文明의 認識을 위한 매개기능보다는 抵抗文學의 形態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으리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²⁾.

이들 傳記物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화의 물결과 함께 社會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당시인들에게 특히 중요해진 現實領域을 목표로 하여 개화기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人間型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무릇 이 라란부인전을 읽는 자여 너자는 그 하느님이 품부하신 보통지혜와 동등 의 무를 능히 자유하지 못하고 규중에 갇혀있던 나약한 마음을 학로 아참에 벽파하고 나와 이 부인으로써 어미를 삼고 남자는 그 인류의 고유한 활동성질과 자유권리를 능히 부지하지 못하고 남의 아리에 엇기를 달게 녀이던 비루한 성품을 한칼로 버러버리고 나와 이 부인으로써 스승을 삼어 이천만이 합학야 호마음 호뜻 호몸이 된 즉 대한이 구쥬열강과 더브러 동등이 되지 못할가 엇지 근심하리오……>

1907년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간행된 「라란부인전」의 서문을 보면, 사회의 변화와 가치 전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번역 소개의 의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현실적인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民衆의 教化와 社會意識의 촉구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2) 李在鎭; 開化期의 愛國小說(「開化期의 愛國文學」新丘文化社 1974) p. 142.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傳記物이 국난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구국적인 인물의 일대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申采浩의 「乙支文德」序文에도 <讀者의 樽前茶後에 談柄을 賚코저 蒿이 아니라 祖國의 名譽歷史를 擧호야 卑劣者를 警醒蒿이며 讀者는 螢隱蠶床에 文潮를 發코자 蒿이 아니라 先民의 偉大事業을 贊호야 國民의 英雄崇拜心を 鼓吹蒿이며 抑又二千年前の 風雲戰爭을 閒坐歌詠코저 蒿이 아니라 熱誠의 冒險的의 古人跡을 描畫호야 二千年後 第二乙支文德을 喚起蒿이니> 라고 밝힘으로써 그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작된 新小說이 등장하여 널리 소개되기 직전에 史書類나 傳記物 등과 함께 번역된 외국의 작품으로는 「瑞士建國誌」(김병현 譯 1907), 「愛國精神」(李採雨 譯 1908), 「經國美談」(玄公廉 譯 1908)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새로운 조선의 政治的 理想을 선전하고 우매한 민중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부터 이미 보급되어 있던 史書類나 傳記物 등과 함께 ‘政治的 散文’ 또는 ‘政治小說’로 파악되기도 하였다.³⁾ 그렇지만 「瑞士建國誌」나 「經國美談」 등은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외국 작품의 번역 소개라는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번역자의 의도 역시 정치적인 經綸의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중 계몽이라는 시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한 현실의 명확한 인식이 史書類의 발간 의도이며, 傳記物에서는 개화기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서 구국적인 인물의 일대기를 소개한 것이므로, 그러한 時代意識이 외국작품인 「瑞士建國誌」, 「愛國精神」, 「經國美談」 등의 번역 소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소설에 대해서는 외국소설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受容態

3) 林 和; 概說 朝鮮新文學史(朝鮮日報 1939. 11) 第二節 政治小說과 翻譯文學 참조

度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소설에 대한 인식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저 소설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사람의 정신을 활동케 하는 호 기관이나……(중략)……사람의 성품을 비양하며 비성의 지혜를 지도하게 할 우리나라는 여간 국문소설이 있다하나 허탄무거하거나 음담패설이요 한문소설이 있으나 조흔 허무하여 실상이 죽어서 죽히 후세에 감계와 모범이 되지 못할지라……>⁴⁾

<간관은 청설하시오 아한 국문의 편리가 한문보담 진요하며 민지를 발달하게 하 쉬우되 이왕 여념의 성납하는 소설이 부탄 허무하여 부녀와 목동의 담소하는 자리가 될 썩음이요 지식과 경논의는 일호 유익이 업슬 썩더러 원더호 식견의 방비가 불무인교로……(중략)……경국미담 신소설을 번역하되 고루의 부히 지설은 일절 불용하시오 구람하시는 첨군자는 고인의 스적을 보와 이국심을 분발하여 일후라도 몸소 당할 지위를 생각하시오>⁵⁾

앞의 인용에서 엿볼 수 있는 번역자들의 소설에 대한 태도는 古代小說에 대한 비판과 소설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古代小說에 대한 비판은 소설이 갖는 寫實性과 倫理性的의 문제에 대한 역자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설에 있어서의 寫實性 여부는 그 작품의 美的 價値를 평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크게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앞의 인용에서는 <허탄무거> <부탄허무>등으로 古代小說의 내용의 非現實性을 지적하고 감계와 모범이 될 수 있는 <실상>이 적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품의 藝術性 여부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독자들에게 미치는 感應力의 문제를 중요시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신지로 「瑞士建國誌」나 「經國美談」의 내용은 그 소재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말하자면 <실상>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하여 개화기의 社會現實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지 않

4) 김병현 譯; 정치소설 서순진국지(博文書館 1907.11) 발행자 로익형의 서문

5) 현공영 譯; 經國美談(右文館 1908.9) 譯者序文.

으면 안된다. 당시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었던 사회문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抵抗과 국권의 회복이었으며, 사회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누구에게나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앞에 두고 번역소개된 「瑞士建國誌」, 「經國美談」 등은 〈신상〉의 기록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감제와 모범을 찾으려 했던 강렬한 時代意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史書類와 傳記物이 모두 사실의 기록이었던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古代小說의 내용을 〈음담패설〉이라고 몰아세운 역자의 태도는 소설의 效用性을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소설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을 모범과 감제, 지식과 경륜이라는 계몽 또는 교화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견해는 諺文小說이 그 내용에 있어서 유예하고 또 허망하여 속된 뜻이 있으므로 진실을 혼동케 한다고 지적했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전통적인 소설관⁶⁾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화기 지식인들의 교양적 바탕으로 보아, 당시 유행했던 일본이나 중국의 政治小說의 영향이 일단은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3.

조선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개화기의 국권회복의 理想은 일제의 세력 확대와 함께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1906년 2월부터 일제는 統監府를 설치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적 지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植民地支配를 규정한 保護條約(1905)의 체결은 일제가 약탈의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개화운동은 결국 韓日合邦이라는 비극적 상황속에서 그 실질적인 쇠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6) 朱明姬; 軍談小說研究(國文學研究會 1974) p. 12.

7)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 171.

1907년에 일제의 압력으로 공포한 新聞紙法은 칙령세력에 대한 저항과 자주의식을 내세웠던 모든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에 탄압을 가하였으며, 민족의식에 자극이 될 만한 대부분의 서적들의 發賣頒布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몇몇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새로운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文學史에서는 이 소설들을 ‘新小說’이라는 새로운 소설형태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대적인 문학의 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게 일반적 견해이다. 新小說은 작중인물과 사건의 實在性을 바탕으로 새로운 時代精神을 그 내용 속에 반영하고 있으며 近代小說로서의 하나의 試圖過程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⁸⁾ 특히 言文一致에 가까운 口語體 문장을 소설 속에서 실현해 보임으로써 개화기 國語國文運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국문체가 소설문체로 고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초기의 新小說은 史書類와 傳記物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啓蒙的인 의도의 직접적인 표현과는 약간 다른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창작소설로서 新小說이 가지는 虛構的인 性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新小說의 작가가 당시 현실에 대해 보여주고 있던 작가적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新小說의 초기작품들의 내용을 당시의 時代的 狀況과 결부시켜 보면, 日帝侵略이라는 현실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侵略勢力에 대한 抵抗意識을 강렬한 諷刺로 표현한 것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개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제 세력에 동조하여 칙령정체에 호응하는 의도들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도 있다. 前者의 경우는 安國善의 「禽獸會議錄」(皇城書籍業組

8) 全光鏞; 韓國小說發達史下(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7) p. 1180.

합(1908)과 劉元杓의 「夢見諸葛亮」(廣學書舖 1908)을 들 수 있으며, 1906년에 萬歲報에 연재했던 李人植의 「血의淚」(1907년에 단행본으로 간행) 그리고 「銀世界」(同文社 1908)는 後者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安國善의 「禽獸會議錄」은 1908년 2월 초판 발행 이후 다시 5월에 재판이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討論의 형식을 이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작가의 社會意識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작품기법의 사용은 사건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로서의 小說形式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품내용 전체가 하나의 諷刺로서 人間社會의 矛盾을 예리하게 비판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 「禽獸會議錄」의 諷刺方法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하나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놓은 점이며, 또 하나는 그들 동물들로 하여금 討論을 통하여 人間社會를 통렬하게 비난하도록 한 점이다. 특히 동물의 擬人化는 하나의 앨리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의 現實社會에 대한 비판은 明示的인 동시에 含蓄的인 특성을 갖는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討論을 통하여 人間社會의 不條理를 직접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諷刺의 明示的인 일면이 되며, 含蓄的인 諷刺란 바로 앨리고리를 이용한 표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諷刺의 방법은 김필수의 「경세종」(廣學書舖 1908) 등 몇몇 작품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禽獸會議錄」의 경우 보다는 社會意識이 약화되어 있고, 討論의 방법이 작품 속에서 民衆教化의 作家精神을 표현하는데 이용된 대표적인 예는 李海朝의 「自由鐘」(金相萬書舖 1910)을 들 수 있다.

〈蜜啞子小說〉이라는 副題를 붙이고 1908년에 발표된 劉元杓의 「夢見諸葛亮」은 「蜜啞子」라는 말에서부터 강렬한 諷刺性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그 내용으로 보아 「夢遊錄」의 부류에 넣어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하였는데,⁹⁾ ‘讓者謂爲非計’ ‘容或無怪十餘’ ‘先生歷史演義’ ‘東土文學虛實’ ‘黃白關係眞狀’ ‘支那政略改良’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섯 가지 이야기에서 꿈에 만난 諸葛亮이 당시의 現實的 狀況을 날카롭게 파헤친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인 인물인 諸葛亮을 현실 속에 등장시켜 日帝侵略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 작품에 申采浩가 붙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그렇지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갈량을 꿈꾸는 것은 그의 두건을 꿈꾸는 것이요, 그 羽扇을 꿈꾸는 것이요, 그 四輪車를 꿈꾸는 것이요, 祁山五丈原을 꿈꾸는 것이지만, 내가 꿈꾸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십세기 동양의 혁명이니, 그러므로 내가 諸葛亮을 꿈꾸지만 실은 諸葛亮이 나를 꿈꾸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이 「夢見諸葛亮」은 1910년에 發賣頒布가 금지되었고 韓日合邦이 이루어지면서는 혹독해진 日帝의 탄압으로 文學作品을 통한 抵抗意識의 표현마저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한편, 創作小說로서 新小說의 본격적인 출현을 의미하는 李人植의 「血의 淚」는 앞의 두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新小說 「血의 淚」는 淸日戰爭 당시의 조선의 비극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는 작가 李人植이 淸日양국의 세력다툼 때문에 朝鮮인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참화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난 淸日戰爭의 결과는 조선에서의 日本勢力의 擴大,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제의 殖民地라는 엄청난 비극의 실마리가 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血의 淚」의 내용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주인공 〈육련〉의 가정파탄이 外勢侵略의 불운을 겪고 있는 朝鮮人들의 民族的 悲劇으로 설정된 것 같지는 않다. 처참한

9) 趙東一; 前掲書 p. 79.

10) 雖然彼出嶺者 而諸葛夢輪巾耳 夢羽扇耳 夢四輪車而 夢祁山五丈原耳 而余之夢不然 乃二十世紀東洋之革命耳 固余夢諸葛而實諸葛余耳

戰禍에 대한 리얼한 묘사로 시작되는 이 소설의 서두에서 부터 철저히 계산된 작가의 日本 指向的인 態度가 숨겨져 있는데, 가족들을 잃은 여주인공 <옥련>이 일본인의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가 文明開化의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新文化에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선정된 淸日戰爭의 승리자는 일본이었고, 일제의 植民地 統治로 開化運動의 실질적인 기운이 점차 퇴조하게 된 점을 생각한다면, 李人植의 이러한 태도는 侵略勢力에 야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開化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봉건적인 社會制度和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강렬하게 비판한 소설 「銀世界」는 조선시대의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家庭小說의인 性格을 비교적 크게 벗어나 社會小說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이 소설의 내용에서도 外勢侵略에 대한 작가 李人植의 민족적 抵抗意識은 찾아보기 힘들다. 甲申政變을 전후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부패한 社會現實에 대한 불만과 政治制度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韓末의 義兵運動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주인공들의 태도는 開化論者이면서도 親日的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던 李人植의 사상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초기의 新小說이 侵略勢力에 대한 抵抗 또는 同調라는 상반된 社會意識을 반영하고 있었던 점과는 달리 新小說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李海朝나 崔瓚植 등에 이르러서는 소설 내용이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벗어나 일상적인 소재를 통한 通俗的인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화기의 시대정신이 侵略勢力에 억압당한

채 변질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韓日合邦을 전후한 개화기의 詩歌類에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현상이다. 개화기의 詩歌들은 저항의 노래로서 전통적인 형태를 계승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의 딴에서도 주체적인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행동문학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들이다.¹¹⁾ 그런데 개화기의 社會意識을 전통적인 4·4조의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던 開化歌辭가 1910년을 전후하여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과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태도를 모두 상실한 채 소멸해 버렸으며, 그 대신에 외래적인 7·5조의 唱歌가 소극적인 民衆啓蒙을 내세우고 律文 양식의 대표적인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렬한 社會諷刺를 특유한 메타포로 처리하였던 개화기의 時調도 일제의 침략과 함께 時調 본래의 抒情的인 측면으로 복귀하거나 聯時調의 형태를 취하여 唱歌와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李海朝의 경우에는 주로 소설을 신문에 연재함으로써 新小說의 성격을 독자인 대중들의 기호에 알맞게 通俗的인 이야기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新小說과 신문의 결합은 문학작품의 상품화를 뜻하는 것으로 新小說이 초기에 보여주던 정치적 색채를 벗어나 일반 대중에게 흥미있는 읽을거리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직업적인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李海朝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의도보다는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도덕원리나 취미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鬢上雪」, 「花의 血」, 「九疑山」, 「彈琴臺」, 「昭陽亭」 등의 내용이 대부분 通俗的인 興味主義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자왈 쇼셜이라 하는 것은 미양 빙공착영(懸空捉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 좁혀야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중 그와 방불흐 사 례과 방불흐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열위부인 신스의 진진호 흥미가 일층

11) 鄭漢模 ; 韓國現代詩文學史(一志社 1973) p. 151.

더 성길 것이오 그 사념이 희기호고 그 스실을 경계호는 도흔 영향도 업지 안이
 율지라 고로 본 기사는 이 소설은 귀족홈이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잇슴을
 마르고 또 마르노라.>

1911년 每日申報에 연재된 후 이듬해에 普及書館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李海朝의 「花의 血」 後記를 보면 新小說의 작가로서 李海朝가 지니고 있던 小說觀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李海朝는 「自由鐘」에 시도 작중인물의 토론을 통하여 <춘향전은 음탕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교과서라 훗 것이니 국민을 음탕교과로 가르치면 엇지 풍속이 아름다오며 처량교과로 가르치면 엇지 장진지마이 있으며 허황교과로 가르치면 엇지 정대훈 괴상이 잇스릿가>하며 古代小說을 특별히 비판한 바 있고, 「彈琴臺」(新舊書林 1912)의 後記에서도 <소설에 성질이 눈에 띄이고 귀에 들리는 실적만 기록하면 취미도 업슬뿐 아니라 혼 괴사에 지너지 못홀 터인즉 소설이라 명칭할 것이 업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근대적인 小說觀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서 理論的인 性格을 띤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설의 본질이나 내용 목적 등에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李海朝는 소설의 본질적인 성격을 내용의 虛構性과 표현의 寫實性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인용에서 <빙공착영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중한다>든지 <눈에 띄이고 귀에 들리는 실적만 기록하면 취미도 업슬뿐 아니라 혼 괴사에 지너지 못>함을 지적한 것은 바로 스토리 내용의 虛構性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¹²⁾ 이러한 소설의 虛構性에 대한 인식은 <실상>의 기록에서 <감계와 모범>을 찾으려 했던 「瑞士建國誌」 등의 역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소설의 虛構的인 性格은 자칫하면 내용의 非現實性과 혼동될 우려가 있지만 그것

12) 全光鏞; 前掲論文 p. 1179.

은 寫實的인 表現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소설 속에서 <방불흔 사람과 방불흔 사실>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素材를 선택하여 寫實的으로 表現한다는 模寫論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작가 李海朝가 근대소설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리얼리티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인용에서 李海朝가 소설의 기능 또는 그 목적을 <영향>과 <재미>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놓은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李海朝의 견해를 따르다면, 소설의 <영향>이란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므로 小說이 갖는 社會的 效用性에서 주로 교화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설의 <영향>에 대한 그의 견해는 新小說에 앞서 등장한 史書類, 傳記物, 번역소설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文學作品으로서의 藝術性 여부를 문제삼기 이전에 국가의 독립과 자주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史書類나 傳記物들은 社會啓蒙의 수단으로서 그 시대적 사명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일제침략과 함께 開化運動이 실질으로 퇴조하게 되자 자주독립 민중교회 등의 강렬한 시대의식은 점차 소극적인 계몽 위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李海朝가 내세운 소설의 <영향>문제가 고작해서 풍속의 교정과 사회에 대한 경성에 머무르게 된 점은 이러한 시대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新小說의 작가로서 李海朝가 지니고 있던 개인적 확신은, 그것이 작품 내용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던지 간에 植民地라는 현실상황에 대한 정신적 극복보다는 오히려 通俗性을 지향함으로써 현실과의 타협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통속적인 흥미를 추구하고 있는 그의 小說들은 교화적인 요소들을 의면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 지배에 놓여 있는 민족의 정신적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의 관심

은 사회 현실보다는 언제나 주인공인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개화기 생활양식은 주인공의 생활속에서 형상화된다고 보다는 그 인물의 어떤 개인적 측면으로 귀착되어, 결과적으로는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등속적인 家庭小說의 부류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李海朝의 新小說은 결국 소설의 기능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個人的 趣向의 문제로 축소시켜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小說文學의 유례없는 대중화를 이룬 대신 新小說의 성격을 通俗小說로 변질시켜 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李海朝의 태도는 소설에서의 <재미>라는 새로운 특질을 그 기능에 부여함으로써 초기 新小說에서 볼 수 있었던 功利的인 小說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소설에서의 <재미>란 소설이 갖는 興味本位の 娛樂性과 동일한 의미이며, 作家의 思想이나 理念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꾸며 나감을 뜻하는 것이다. 소설이 <재미>를 지향하면 通俗的인 娛樂物로 전락될 우려가 있지만, 모든 社會階層의 독자들에게 비슷하게 즐길 수 있는 興味の 要素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大衆的인 性格을 갖게 된다. 이 시기에 新小說이 通俗的인 內容을 담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時代的 狀況을 문제시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계기는 新小說이 신문에 연재되어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의 신문들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新小說의 연재도 독자인 대중의 기호를 참작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新小說의 신문 연재는 폭넓은 讀者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文體에 있어서도 개화기에 일반화되었던 國漢文體를 수용하지 않고 古代小說에서부터 전통적으로 小說 文體의 주류를 형성해 온 國文體를 지향하고 있다. 더구나 新小說의 내용이 古代小說的인 性格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開化期의 새로운 時代相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독자들의 호기심

을 자극할 수 있는 新奇性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新小説이 신문의 연재를 통하여 일반 독자에게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新文化 受容이라는 개화기 시대정신의 표현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이 문제시 된다고보다는 오히려 소설 내용의 事件 變化에서 느낄 수 있는 通俗的인 興味가 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小説의 目的을 社會的 功利性을 표방하는 <영향>과 通俗的인 娛樂性을 뜻하는 <재미>라는 상대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李海朝의 작품에서는 「自由鐘」과 「驅魔劍」(大韓書林 1908)이 社會的인 啓蒙意識을 내세워 영항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다른 作品은 <재미>를 위주로 한 通俗的인 興味主義에 경도되어 있다.

李海朝가 시극에 대한 자신의 諸般見解를 토로하고 있는 「自由鐘」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소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이 무시되어 있는데, 토론을 벌이는 여성 주인공들의 人物設定과 場面の 設定 이외에는 소설적인 요소를 찾아 보기 힘들다. 이 작품은 政論的인 主張의 發表에 있어서 극히 근소한 정도로 小説의 條件에다 한때 自己를 假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³⁾ 점에서 볼 때, 문학작품이 道德的인 觀念이나 社會啓蒙단을 내세우고 문학의 본질적 속성을 외면한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小説 「驅魔劍」의 경우에도 迷信打破를 주장하는 李海朝의 社會啓蒙意識이 강렬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일제에 대한 抵抗이나 批判이라는 적극적인 現實問題는 외면하고 있으며, 事件構成에 있어서도 通俗的인 興味에 초점을 둠으로써 主題의 表現에 통일된 인상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편의 작품을 제외한 李海朝의 소설은 通俗的인 娛樂性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설이 주는 <재미>는 문학이 갖는 本質的인 機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藝術的인 體驗에 수반되는 精神現象으로서 快樂이 갖는 의미와도 비슷한 性格을 나타낸다. 예술적인 측면에

13) 林 和; 前掲論文(人文評論 3권 1호 1941) p. 126.

서 볼 때, 快樂이란 美를 통한 情緒의 자극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충실한 體驗의 自己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도 작가의 주제에 대한 表現過程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작가의 내적인 體驗의 世界가 작품을 통하여 독자에게 충실하게 전달될 때 <재미>로서의 快樂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新小說의 작가가 <재미>로서의 快樂의 機能을 소설의 목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실에 대한 認識의 기쁨으로서 보다는 興味本位の 娛樂性을 위주로 한 것임을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1915년에 발간된 安國善의 「共進會」 서문에도 다음과 같은 견해가 보인다.

<……물산공진회는 도라단기며 구경하는 것이요 소설 공진회는 안저서는 두러누어 보는 것이라 물산공진회를 구경하고 도라와서 여관한등 적적할 밤과 기차타고 심심할적과 집에가서 할거할 썩에 이척을 펼쳐두고 한 티문 내려보면 피곤근심 간대업고 즈미가 진진하야 두 티문 세 티문을 칙 노흠슈 업실 만치야 모조록 즈미있게 성티훈 공진회의 여흥을 도움고즈 붓을 들어 귀투하니……>

이러한 소설의 娛樂의인 機能에 대한 강조는 결국 新小說을 通俗的인 이야기 책으로 전락시킨 셈인데, 新小說이 지향하고 있던 社會的 理念의 구현이라는 先導의인 機能도 전차 축소되어 버리게 된 것이다.

李海朝의 新小說과 마찬가지로 崔瓊植의 「秋月色」(滙東書館 1912)과 「鴈의聲」(博文書館 1915) 등에서도 社會風俗의 因習의인 惡習을 타개할 것을 내세운 점이 엇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남녀의 愛情問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日帝植民地라는 現實的 狀況의 극복과는 거리가 먼 소극적인 作家意識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새로이 수용된 西歐의인 近代意識과 전래의 封建的 思考方式과의 대립과 갈등이 문학작품 속에서 감동적으로 묘사된 것은 1917년에 발표된 李光洙의 「無情」에 서야 비로소 볼 수 있으며, 新小說의 통속적인 전락과 함께 李光洙의 등장은 새로운 近代小說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일반

적이다.

그런데, 新小説의 내용이 通俗的인 흥미를 위주르 하는 大衆性을 바탕으로 하게 되자, 新小説의 작가들은 독자들이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설내용의 실감있는 표현을 크게 문제삼았던 것 같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방불한 사실>로 소설의 내용을 그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작품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實感을 강조한 것이며, 表現에 있어서의 寫實性에 대한 作家의 깊은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 태도가 소설의 構成은 물론 문장의 表現에 이르기까지 크게 작용하여, 新小説이 古代小説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일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 하나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新小説의 작가들이 갖고 있던 文學的 意識이 점차 近代的인 文學觀에 접근하여 가고 있는 경향도 이러한 작가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新小説의 變貌樣相은 근대적인 소설문학의 形成過程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新小説의 形成過程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新小説이 歐美 日本文藝의 模倣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주장과¹⁴⁾ 古代小説의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 前代小説의 特性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견¹⁵⁾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현대문학의 傳統斷絶論을 들고 나온 몇몇 文學史家들의 견해로서, 초기의 新小説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수입 소개된 史書類나 傳記物, 「瑞士建國誌」, 「經國美談」 등의 번역소설과 함께 등장

14) 이 견해의 대표적인 예는 金台俊, 「朝鮮小説史」(學藝社 1939)와 林和, 「概說朝鮮新文學史」를 들 수 있다.

15) 趙東一교수의 「新小説의 文學史的 性格」이 대표적이다.

하게 되자 外來的인 영향을 다분히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新小說이라는 文學形態의 새로운 등장이 가능하였던 개화기의 時代的 狀況을 중요시하여 新小說의 내용 속에 포함된 新(새로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후자의 견해는 新小說의 소설적 특성을 전대의 古代小說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으로, 주로 新小說과 古代小說, 특히 英雄小說과의 類型構造의 一致에 근거를 두고 있다. 古代小說과 新小說 사이에 존재하는 계승적인 측면과 극복의 측면을 肯定的 繼承과 否定的 繼承으로 모두 포괄시켜 文學史의 연속성을 피하고 있는 이 견해가 외래적인 요소의 수용문제를 도외시한 느낌을 주는 것은, 소설이라는 문학장르의 특유한 類型構造를 중심으로 그 변화 발전을 장르 자체의 독자적인 생명력에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의 견해가 절충될 수만 있다면, 新小說의 형성은 전대의 소설문학의 기반 위에서 서구적인 문학정신의 수용 그리고 작가들의 창조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新小說은 조선 사회의 붕괴와 함께 서구질서의 수용이라는 개화기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문학적으로 創造的인 일면과 受容的인 일면을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어 보여 주는 文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創造的인 일면이란 작가의 文學的 想像力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며, 受容的인 일면은 新小說에 나타나있는 傳統的인 要素와 外來的인 要素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한 것이다. 초기의 新小說에서는 개화기라는 특수한 時代的 狀況을 바탕으로 文學作品을 통한 社會啓蒙 또는 政治意識의 表現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은 또 일본 明治時代 政治文學의 性格과도 상통하는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新小說이 점차 大衆性을 띤 채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면서 부딪는 오히려 前代의 古代小說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논술한 바 있지만 古代小說의 小說의 興味에 익숙해져 있던 독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新小說이 점차 通俗的인 大衆小說로 변모되자 초기의 강렬한 時代意識은 변질되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新奇性을 위주로 흥미 본위의 사건구성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던 것이다.

新小說의 작가층의 변화를 보던 新小說의 變貌樣相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초기 新小說의 경우에는 그 작가들을 두 계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외국에서 수입된 史書類나 傳記物 등을 번역하던서 自主意識과 外勢에 대한 抵抗意識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했고 특히 新小說의 창작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時代精神을 표현하여 민중계몽에 앞장섰던 主體的인 開化期의 知識人들로서, 申采浩, 安國善, 劉元杓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文明開化를 주장하던서도 侵略勢力인 일제에 호응하고 또 매국적인 권력층과 결탁했던 外勢依存的인 新小說 작가인데 이 경우에는 李人植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계층의 作家들에 의하여 창작된 신소설은 다분히 政治的인 색채가 짙은 것들이었으며, 韓日合邦 이후, 전자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라는 비극적 상황을 文學作品을 통해 정신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民族文學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던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그 文學的 遺産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인 물락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두 계층의 작가들과는 달리,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소극적인 민중계몽과 아울러 소설의 재미를 살려 大衆的인 기반위에서 新小說의 독자층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했는데, 李海朝의 뒤를 이은 崔瓊植 金教濟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작가들의 출현은 개화기의 선구적인 지식인으로서 政治的인 經綸을 내세웠던 초기 新小說의 작가층이 점차 職業的인 意識을 앞세운 본격적인 小說家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新小說의 신문연재를 통하여 소설문학의 유례 없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신문에 연재가 끝난 작품들은 대부분 다시 단행본으로 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의미에서 소설이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점이며, 둘째는 초기의 新小說에서 간혹 볼 수 있었던 국한문체의 표기 방법을 지양하고 국문체를 수용함으로써 新小說의 독자층에 대한 평준화는 물론 더욱 그 폭이 확대되었으며 小說文體로서의 국문체의 전통이 확립된 점이다. 셋째는 초기의 新小說에서 볼 수 있었던 社會啓蒙, 民衆教化 등의 社會的 機能을 중요시하던 공리적인 小說觀이 점차 변질되어 문학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近代의 文學意識에 훨씬 접근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설 문체의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볼 때, 新小說의 문체는 新小說의 文學史的 位置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소설에서의 문체란 작가의 個性에 좌우되는 것이며 작가가 그의 主題에 대하여 내적인 형태를 세밀히 통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能動的인 手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新小說의 문체는 新小說 文學이 이루어 놓은 言語的 成果라고 말할 수 있지만, 典型的인 人物設定과 規範的인 모랄의 강조가 小說의 내용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個性에 대한 認識의 부족이 문제시된다.

表記文字의 면에서 新小說의 문체는 개화기에 일반화되었던 국한문체를 수용하지 않고 국문체를 지향함으로써 고대소설의 이른바 諺文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민중의 일상적인 언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온 諺文體의 전통이 新小說에도 계승된 셈이며, 초기의 몇몇 작품들이 국한문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新小說은 그 문체가 국문체로 고정

16) 拙稿: 開化期小說의 文體研究(現代文學研究會 1975) 참조

되어 개화기 國文運動의 정신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다. 新小説의 극 문체는 複合的인 文章構成이나 문장 길이의 長文化 傾向 등 古代小説의 문장에서 볼 수 있었던 類型的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古代小説의 律文的 要素를 탈피하고 散文體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변화는 소설이 곧 散文精神의 표현이라고 할 때 소설문학의 새로운 進展을 의미하는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新小説에서는 ‘~더라’ ‘~이라’ 식의 문장에서 ‘~한다’ 식의 文章類型이 새로이 등장하여 활용됨으로써, 내용의 줄거리를 전달하는데 집착했던 고대소설의 平面的 叙述性이 점차 극복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新小説의 문장표현에서는 裝飾的인 表現技巧가 상투적인 修辭로 고정되어 主題 內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新小説의 작가가 새로운 文章構造나 엄밀하고도 정확한 文章類型을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였던 점과 마찬가지로 新小説의 문체가 갖는 限界라고 하겠다. 개성적인 문체에 대한 자각이 아직도 新小説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新小説의 문체는 新小説이라는 문학장르가 갖는 類型的 문체이며 그것은 곧 개화기의 時代精神의 소산으로서 新小説만이 갖는 특유의 表現構造인 것이다. (完)